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주민 청원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의원입니다.

○ 서울 시민 오동일 외 199명이 청원하고 본 의원이 소개하는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주민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본 청원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년,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 중 서울 지역 2만호의 주택공급지를 서초구 서리풀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서초구 내곡동 샘마을은 해당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그간 샘마을이 예비군훈련장 인근 등에서 가장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차례도 실질적인 지정 검토를 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망과 행정 형평성 문제 제기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 샘마을은 수십 년 전부터 단일한 출입구를 공유한 하나의 공동체임에도 ‘샘1’, ‘샘2’로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100가구 이상’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수차례 해제 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해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조차 들어설 수 없는 고속도로변의 고소음 지역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반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토지 이용이 유리한 샘마을은 지정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은 그 이유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샘마을은 10차선 현릉로, 구룡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강남, 삼성동, 판교 등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공공주택 개발 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 현릉로를 기준으로 국정원 방향 샘마을 일대이는 3만 평가량의 유희부지가 존재하며, 주민들은 저층 아파트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빈집과 노후주택이

방치되고 있으며, 환경파괴와 불법 시설 증가 등 지역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내곡동 샘마을은 대다수가 환경등급 3~5등급지로 보존가치가 낮고, 교통 접근성, 가용 부지, 주민 수용성 등 공공주택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행정 기준과 절차로 인해 수차례개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 이제는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이 지역을 외면해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강남권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내곡동 샘마을이 ‘서리풀 공공택지지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검토와 전향적인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